

# 특집

## 국제 심포지엄: 고등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수학습센터의 과제와 역할

기획의 말

한국 대학 교수학습센터의 향후 발전 방안\_박승호

e-Learning 의 활성화와 교수학습센터의 역할\_심미자

글쓰기 교육과 교수학습센터의 과제\_박성창

2001년 3월에 서울대학교는 교수의 강의와 학생의 학습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대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수학습개발센터를 설립하였다. 지난 5년 동안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전국의 여러 대학들은 교수학습센터를 설립하였고, 현재 교수학습센터의 협의체인 대학교육개발센터협의회(이하 대교협)에 가입된 회원 대학은 85개이다. 많은 대학들이 교수학습센터에 가졌던 관심과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루어진 양적 팽창을 돌아볼 때, 교수학습센터는 설립 당시 가졌던 목적을 어느 정도 성취하였는지 평가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 지난 6월 10일에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는 그런 평가를 위한 자리로서 '고등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수학습센터의 과제와 전망'이란 제목으로 제1회 기초교육 강화를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대교협에 소속된 대학들의 교수 및 연구원 140명이 심포지엄에 참석하였고, 다양한 발표를 경청한 후 발표된 쟁점들을 함께 토론하였다. 심포지엄의 본 프로그램에 앞서, 정운찬 총장은 환영사에서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교육의 역할을, 임현진 기초교육원장은 축사에서 대학에서의 기초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전형준 교수학습개발센터 소장은 개·폐회사를 통해서 교수학습센터와 센터 구성원들의 역할이 가진 의미와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은 3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섹션은 해외 대

학의 교수학습센터가 추진한 활동 내용을 듣는 시간이었다 첫 번째 주제 발표자인 런던정경대학(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교수학습개발센터(Teaching and Learning Development)의 소장 리즈 버넷(Liz Barnett) 박사는 영국 정부가 주도하는 고등교육 개혁의 과정과 관련하여 「영국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과 혁신: 교수학습센터의 역할」(Promoting Quality and Innovation in University Education in Britain: the Role of Teaching and Learning Centres)이라는 제목으로 런던정경대학 교수학습센터의 운영에 대해 소개하였다 두 번째 발표자인 싱가포르의 난양기술대학(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의 교육개발센터(The Centre for Educational Development) 소장인 다니엘 탄(Daniel Tan) 박사는 「e-Learning에 대한 총체적 접근: 난양기술대학을 중심으로」(A Holistic Approach to e-Learning: NTU Case Study)라는 제목으로 난양기술대학에서 이루어지는 e-Learning을 소개하였다 두 번째 섹션은 한국의 대학에서 교수학습센터의 운영 현황과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대학 교육 혁신을 위한 교수학습센터의 과제가 무엇인가를 점검하는 시간이었다 첫 번째 발표자인 미시간공과대학의 조벽 교수는 「한국 대학 교수학습센터의 향후 발전 방안」, 두 번째 발표자인 교육인적자원부의 배성근 교육정보화기획과장은 「대학교육 혁신을 위한 교수학습센터의 역할과 과제」, 세 번째 발표자인 서울대 교수학습센터의 민혜리·이희원 선임연구원은 「한국 대학 교수학습센터의 운영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섹션의 주제에 관한 발표를 하였다 세 번째 섹션에서는 캘리포니아대학교 데이비스 캠퍼스(UC Davis)의 글쓰기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게리 슈 굿맨(Gary Sue Goodman) 교수가 「학습을 위한 글쓰기: 글쓰기의 과정과 인지 발달」(Writing to Learn: Writing Process and Cognitive Development)이란 제목으로,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의 김태환 선임연구원은 「한국 대학 글쓰기 교육의 과제」라는 제목으로 대학에서의 글쓰기 교육의 중요성과 방향을 제시하였다

대교협에서 지금까지 개최한 심포지엄이 국내 각 대학의 교수학습센터

터에서 이루어진 활동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였던 반면, 이번 심포지엄은 그 범위를 넓혀 외국 대학들의 교수학습센터에서 진행된 활동에 관한 정보를 접하고 교수학습센터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던 점에서 고무적이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각 대학의 교수학습센터가 현재까지 진행해온 활동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 데 하나의 토대가 될 것을 기대한다. 본 센터에서 기획한 국제 심포지엄이 과연 이러한 기대에 부합하는지를 알아보고 평가하기 위하여 이번 호 『가르침과 배움』에서는 국제 심포지엄을 ‘특집’으로 다루었다. 심포지엄에 참석하여 토론에 참석해주신 분들에게 평가의 글을 의뢰하여 다음과 같이 실었다. 서울여자대학교 박승호 교수(교육심리학)가 ‘교수·학습에 대해, 연세대학교의 심미자 부장(교육개발센터 교육자료개발부)이 ‘e-Learning’에 대해, 서울대학교의 박성창 교수(국어국문학과)가 ‘글쓰기 교육’에 대해 글을 써주었다. 